

석사학위 논문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 연구

김 아 름

2011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성규 선생님

본 논문의 목적은 활용과 곡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어 모음조화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 중 하나는 한국어 모음조화의 예외형의 출현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모음조화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모음조화 예외형의 출현 경향을 통해 미루어 볼 때, 한국어 모음조화는 근대 한국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근대 및 현대 한국어 시기의 모음조화’와 ‘고대 및 중세 한국어 시기의 모음조화’와 같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는 곧 모음조화에 있어서만큼은 근대와 현대 한국어 시기가 하나의 부류를 이루고, 고대와 중세 한국어 시기가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 및 현대 한국어 시기의 모음조화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음조화의 예외가 양성모음을 가진 어간 뒤에 음성모음을 가진 문법형태소가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근대 한국어 시기에 있었던 일련의 모음들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양성모음 어간과 문법형태소의 결합을 서술하는 2장에서 다루어진다.

고대 및 중세 한국어 시기의 모음조화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음조화의 예외가 음성모음을 가진 어간 뒤에 양성모음을 가진 문법형태소가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모음조화의 생성 단계에서 나타난 혼란상으로 추정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음성모음 어간과 문법형태소의 결합을 서술하는 3장에서 다루어진다.

한국어 모음조화의 기원적 모습에 관한 논의 역시 고대 및 중세 한국어 시기의 모음조화를 주로 서술하는 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기의 한국어 문법형태소들이 양성모음의 단일형 단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4장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된다.